

# SKT, 4년내 기업가치 40조 목표... 'AI 컴퍼니' 비전 제시

## T B

유영상 대표, 취임 1주년 타운홀 미팅 "SKT 2.0 비전 더 명확하게 정리" 기존 사업군, 3대 추진전략 재편 SKT·브로드밴드 브랜드 리뉴얼



유영상 SKT 대표이사 사장. /SKT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고객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AI) 컴퍼니'라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 사업분야를 AI로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기업가치 4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 브랜드 이미지도 일신해 'SKT 2.0' 시대를 알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유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7일 전체 구성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갖고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AI 컴퍼니'라는 SKT 2.0의 진화된 비전을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 1년간 전 구성원의 노력으로 SKT 2.0의 비전이 보다 뚜렷

하고 명확하게 정리됐다"며 "구성원의 역량 향상이 SKT 2.0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인 만큼, 이를 위해 기존 자기주도 일문화를 유지하며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 ◆통신 기반 연결 기술에 AI 더한다

유 대표는 기존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AI버스 ▲스케넥티드 인텔리전스 등 5대 사업군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재편한다. ▲핵심 사업군을 AI로 재정의 ▲AI서비스로 고객 관계 혁신 ▲AIX가 3대 추진 전략이다.

우선 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MNO'를 선보일 계획이다. 미디어 영역은 부족한 콘텐츠 역량을 키우기 위해 IPTV·채널·T커머스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자산을 통합한다.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선 데이터센터, 전용회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의 6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고객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AIE nterprise'로 재정의할 계획이다.

에이닷은 고객의 사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킬러 서비스를 발굴한다. 이프랜드는 글로벌 진출과 함께 다양한 업체들과의 공동 콘텐츠 개발로 글로벌 톱티어 메타버스 서비스로 도약한다. 소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이프랜드의 재화를 현실 경제와 연계하는 크립토키본 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T우주는 구독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AI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구독상품을 안내하고, 파트너사들에겐 구독모델 기반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AI 기반 커머스 구독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AIX는 AI나 디지털 전환(DT)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 또는 인수하고, SKT가 보유한 AI/DT 역량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기업가치를 40조원 이상으로 키워낸다.

### ◆SKB 브랜드도 리뉴얼 한다

SKT는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상징할 T(SKT)와 B(SK브로드밴드)의 리뉴얼 브랜드도 공개했다.

SKT와 SKB의 리뉴얼 브랜드는 'OPEN'을 모티브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문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익숙한 고정관념과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비즈니스·새로운 생활을 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브랜드 대표 색인 'T Blue'는 미래지향성과 기술을 의미하며, SKT는 고객들에게 일관되고 통일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T와 B의 브랜드 리뉴얼에 동일한 컬러 시스템을 적용해 양 브랜드간 시너지를 강조했다.

SKT는 T와 B의 리뉴얼 브랜드를 조만간 주요 사이트를 시작으로 고객접점 전반에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하위 브랜드 전체에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SKT는 SKT 2.0 비전 달성의 핵심 요소를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기업문화를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협업'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유 대표는 "AI 컴퍼니'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걸어가는 동시에 위기를 대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모든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28GHz 5G 전송 거리·속도 '신기록' 달성

삼성전자, 호주 NBN과 현지 시험 "호주 지역간 디지털격차 해소 기대"

삼성전자가 28GHz 5G 네트워크 기속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호주 NBN과 함께 28GHz 5G기술 현지 시험을 통해 10km 거리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최고 2.7Gbps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평균 속도는 1.75Gbps였다.

28GHz 5G 통신으로 기록한 최장 전송 거리, 최고 전송 속도다. 초고주파수 대역 5G 통신이 전파 도달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한계를 극복하고 속도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최신 2세

대 5G 모뎀칩을 탑재하고 기지국, 라디오, 안테나 기능을 하나의 폼팩터로 제공하는 28GHz 콤팩트 매크로(Compact Macro) 장비 ▲800MHz 광대역폭을 활용해 더 높은 전송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Carrier Aggregation) ▲데이터를 보다 멀리까지 전송하게 하는 안테나 최적화 기술인 3D 빔포밍(Beamforming) 등을 적용했다.

호주는 인구 밀도가 낮고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로, 삼성전자는 이 기술로 교외 지역까지 무선 초고속브로드밴드 서비스(FWA)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이

준희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무선 통신 기술력과 전 세계에서 축적된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주파수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한발 더 다가갔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차세대 통신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BN 레이 오웬(Ray Owen)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삼성전자와의 이번 공동 시험 결과는 호주의 지역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28GHz 대역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호주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 LG디스플레이, 17일까지 '네버 얼론'展

디지털 아티스트 6팀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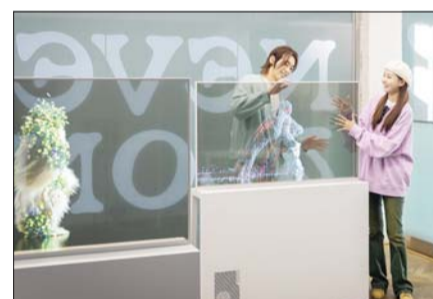
LG디스플레이가 다시 한 번 OLED로 디지털 아트를 표현했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까지 서울 성수동 썬드에서 '네버 얼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벌어진 인간 관계의 틈을 디스플레이가 이어준다'는 주제로, 국내외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 6팀이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작품에는 LG디스플레이 대형 OLED와 투명 OLED가 완벽한 블랙 표현력과 함께 투명하거나 휘어지는 성질을 활용해 디지털 아트 캔버스로 활용됐다. OLED의 차별적 가치를 알리는 '아트 웨이브' 프로젝트 일환이다.

검은색 바탕에 수많은 흰 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LG디스플레이OLED만의 완벽한 블랙 표현을 강조하는 '플래



투명 OLED를 활용한 작품 트랜스피규레이션.

그(Flag)', 투명 OLED의 홀로그램 효과를 이용한 '트랜스피규레이션(Transfiguration)' 등 작품이 소개됐다. 대형 OLED와 투명 OLED를 겹치듯 배치해 3D 효과를 극대화한 '민트 유어 데스티니(Mint Your Destiny)'도 전시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미국 자동차 기반 라이프스타일 및 패션 브랜드 피치스(Peaches)와 함께 서울 성수동 피치스도원에서 '아트 웨이브'의 첫번째 프로젝트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협력사 시스템·서버 사이버보안 역량 키운다

'협력사 상생 사이버보안 워크샵'

LG전자가 협력사 사이버 보안까지 챙긴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서초R&D캠퍼스에서 '협력사 상생 위한 사이버보안 워크샵 2022'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가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갖춰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상생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는 자동차 분야 국제기준 대응 사례를 발표하고, 소프트웨어(SW) 개발을 비롯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자사 표준 보안 개발 프로세스(LG SDL)를 소개했다.



LG전자가 '협력사 상생 위한 사이버보안 워크샵 2022'를 진행하는 모습.

또 자체 개발한 사이버보안 진단도구 및 오픈소스 관리도구도 함께 선보였다.

LG전자는 협력사들이 이번 워크샵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각종 시스템 및 서버를 다양한 사이버 공격

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지원했다. /김재용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금호 사계절용 타이어, 유럽서 '우수' 평가

'4S HA32+' 35개 제품 중 5위

금호타이어의 유럽 특화 제품인 사계절용 타이어 '솔루스 4S HA32+'가 유럽 자동차 전문 매체의 성능 시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기록했다.

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솔루스 4S HA32+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주요 브랜드의 사계절용 타이어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타이어 테스트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우수 등급(Good)을 획득했다. 아우토빌트는 "모든 조건의 도로에서 우수한 구동력을 갖췄고, 높은 마일리지 성능과 눈길에서의 짧은 제동거리를 바탕

으로 최고의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고 평가했다.

솔루스 4S HA32+는 최첨단 소재 컴파운드와 지그재그로 교차하는 V자형 패턴을 적용해 접지력과 배수 성능을 최적화했고, 3차원 입체 사이프 등 패턴 설계로 빗길·눈길은 물론 빙판이 살짝 녹은 슬러시 노면까지 어떤 계절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조만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아우토빌트 테스트 결과는 그동안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한 금호타이어의 노력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